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 18.(목) 11:00 < 1.19.(금) 조간 > 배포 2024. 1. 18. (목)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디지털 제품여권(DPP) 대응방향 논의

- 배터리, 섬유, 철강, 타이어, 가전, 알루미늄, 페인트 등 관련 업종별 협·단체와 유럽연합(EU) 규정안 내용 및 관련 동향 등 공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1.18(목),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및 디지털 제품여권(DPP) 대응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유럽연합(EU) 측이 추진 중인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 특히 그중에서도 디지털 제품여권(DPP)의 내용과 관련 동향을 우리 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23.12.5(화) EU이사회와 유럽의회는 EU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에 관해 합의를 도출하였다. 앞서 '22.3월 EU집행위원회는 기존 시행되던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을 확대·개편하는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ESPR)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❶유럽연합(EU) 내에서 유통되는 광범위한 상품들에 대해 내구성, 재활용·수리 가능성, 재활용원료 비중, 탄소발자국 등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하고, ❷디지털 제품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럽연합(EU) 측은 디지털 제품여권(DPP)이란 상품의 전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해당 상품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확인한 후 구매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안(ESPR)은 추후 EU이사회와 유럽의회 양 기관의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디지털 제품여권(DPP) 우선적용 품목, 품목별 세부 규정 등은 그 이후 EU집행위원회에 의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디지털 제품여권(DPP) 관련 규정이 향후 우리 기업들의 유럽연합(EU) 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민관 차원의 대응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장 구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이상헌	(044-203-5660)
		담당자	사무관	김민수	(044-203-566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